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비대한 인체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경 미

# 비대한 인체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강 경 미

# 인 준 서

강경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그 중 인체의 아름다움은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술 활동의 주된 소재로 선택되어 왔으며 아름다움의 기준 또한 시대적 미의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아름다움은 출산과 풍요의 상징을 지닌 비대한 몸짓을 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인 반면에 19세기 초에는 관능미와 우아한 몸매를 지닌 밀로의 비너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미의 기준에 부합한 비너스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다.

현대의 비너스는 서울 한복판 거리를 걸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비슷한 콧대, 비슷한 이마와 볼, 비슷한 눈, 비슷한 몸매의 사람들을 대면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정형화되어 가는 미의 기준에 있어서 진정한 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가는가를 고민하는 나 자신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작업으로 고정화된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터부시되고 무시되는 비대한 여성인체라는 대상을 바탕으로 작업하였다. 본인의 시각에서 해석된 새로운 형상물로서 본질적인 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미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 통찰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 재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여성이기에 외적인 아름다움에 민감한 여성이라는 의식과 함께 출발한다.

본 논문은 2010년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내용과 형식을 살펴본다.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 대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2장 본론에서는 작업의 배경과 작업 전개로 본인작품의 조형화 특성과 제작의도를 연구 분석하였다.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종합하여 전시 ‘비대한 꿈’전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연구자의 작업 과제를 제언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2
1. 작품의 형성 배경 .....	2
1) 시대적 인체 미의 변화 .....	2
2) 인체 표현의 동기 및 의미 .....	6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0
1) 풍선 같이 부풀려진 인체 .....	10
2) 꽃과 색의 상징 .....	12
3. 작품분석 .....	15
III. 결론 .....	30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비대한 꿈, 130×150×270cm, FRP, 아연철사, 레진, 2010 ..... 16
- [작품-2] in bloom, 80×150×100cm, FRP, 아연철사, 레진, 2010 ..... 19
- [작품-3] forbidden, 50×30×50cm, FRP, 레진, 2010 ..... 22
- [작품-4] pride, 80×40×100cm, FRP, 2010 ..... 24
- [작품-5] 과욕, 30×50×50cm, FRP, 철, 2010 ..... 27

# I. 서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매스미디어 속에서 넘쳐나는 이미지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각 사회집단에 대한 이미지의 틀을 제공한다. 개개인이 흑백을 판단할 시간도 없이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이미지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은 본인의 의식이 아닌 획일화된 의식을 심어가고 있으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적인 사고로 자연스럽게 그들 집단의 이미지를 제한시키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 어느 특정집단들에 대해서 왜곡적인 묘사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지게 된다.

또한 이런 반복적인 정보공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중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 각자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 머릿속과 무의식 내면 깊은 속까지 먼저 자리 잡게 된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본인은 그런 획일화되고 고정화된 사회적 기준에서의 해방과 개개인의 내면적인 정서와 본질보다는 표면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 외향적인 면을 중시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미의식의 전환을 꿈꿔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 비대하게 팽창된 인체를 중심으로 통상적인 미의 기준에 반(反)하는 인체표현을 통하여 고정화된 미의식에서의 탈피와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극히 제한되어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규정짓는 사회적인 틀을 인식시켜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을 재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10년 전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 및 전개과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전시의 의미를 밝히며 향후 본인의 작업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 배경

#### 1) 시대적 인체 미의 변화

‘아름다움’이란 형용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이 경우에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과 같아 보이는데 사실 수 세기동안 미와 선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sup>1)</sup> 이것은 미(칼로스:kalos)와 선(아가톤:agathon)이 하나가 된 상태인 칼로카다티아(kalokagathia-아름답고도 선한 것)라는 이상을 내세운 플라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그에 말에 따르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우리의 자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미는 크기와 질서에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질서란 비례와 균형을 갖춘 통일적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고 크기란 제한된 크기의 대상만이 편안하게 감상될 수 있고 감각과 정신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왕이면 전체가 명료하게 감지되는 경우라면, 보다 긴 것이 그 길이에 비례하여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된다는 주장이다. 즉 고대의 철학자에 의하자면 아주 오래전에도 아름다움에는 이상적인 것이 존재한 셈이다. 또한 회의문자인 한자에서 아름다움 미(美)는 양 미(𠂔)자와 클 대(大)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처럼 고대 중국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살찐 양’처럼 통통하고 복스러운 대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 아름다운 존재를

---

1)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이현경 옮김, 열린책들, 2005, p.8

신에게 바치는 희생양으로 제단에 바쳤으니 그들에게는 더 없이 유용하고 합목적적이고 선한 존재가 되어주었다.

한편 근대의 철학자 칸트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될 수도 없고 또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또는 모두에게 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물론 칸트 또한 쾌감이라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만이 대상의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2)</sup> 아름다움의 쾌감은 일반적인 쾌락과 마찬가지로 속박도 없고 명령도 없이 사람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만족감이라고 보았다. 덕분에 아름다움이 선이나 유용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쾌락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면 미적인 판단은 도덕법과 같은 보편적 승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미에 있어 보편적 만족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는 늘 아름다운 모델을 필요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의 정의는 다양하며 시대적 환경이나 지배적 사상에 의해 예술과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간다.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예술가들의 오랜 주제이고 이상인 비너스를 보면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 비너스’[도1]는 복부와 가슴부분이 과장되어 있다.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는 다산과 생식을 상징하는 주술적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손을 바라는 소망에서 가슴과 생식기를 강조하고 생식, 출산을 상징하는 원시적 숭배의 대상이 미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비너스는 약간 나온 배와 굵은 다리와 엉덩이가 강조되

---

2) 미카엘 하우스켈러,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영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4, p.53

어 당시 약간 살찐 여성들을 비너스적인 여성미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말기 밀로스 섬에서 발견된 8등신의 ‘밀로의 비너스’[도2]는 현대까지도 미의 전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성의 우아함이 그대로 살아있고 관능적인 미가 부각되어 있다. 그리스 고대 미학의 요구대로 크기와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황금비의 원리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되었고, 가장 조화가 잡힌 비(比;견줄 비)로서 인간이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나뭇잎의 비로써 예술작품과 건축 양식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중요시 되었다. 밀로의 비너스 상을 표현상에서 보면 어떠한 과장이나 왜곡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여성의 인체를 더없이 섬세하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 보티첼리의 대표적인 작품 비너스의 탄생[도3]은 바닷물의 거품 속에서 탄생한 미의 여신 비너스가 10등신으로 비율적인 면에서 더욱 이상화되어진다.

이상적인 비율은 19세기에서도 근대 이전의 비너스와 매우 흡사한 비례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19세기(1879) 여성의 미를 한 층 강조한 것으로 윌리엄 뷔게로의 ‘비너스의 탄생’[도판4]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현대의 비너스 상이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장 잘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뷔게로는 신고전주의 시대 화가이나 시대에 역행하는 그림을 주로 그려 당대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작품에서의 비너스는 움직임과 리듬감이 살아 있으며 특히 엉덩이가 살짝 들리는 느낌을 주어 관능적인 미에 치중한 듯 보이고 비너스 중에서 가장 에로틱한 비너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19세기 오귀스트 로댕의 ‘비너스의 몸치장’[도판5] 도 인체의 비례적인 면에서는 뷔게로의 비너스와 매우 흡사하다. 로댕은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인상주의자들이 회화를 개혁했다면 로댕은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조

각을 독자적인 예술장르로 격상시킨 예술가이다. 세부적인 면의 표현을 과감히 생략, 단순화하여 그만의 독창성을 보여주어 예술이란 미완성의 상태를 미학적 규범으로 제시하여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주었다. 이는 곧 조각예술에 추상적인 요소를 도입한 현대조각의 출발점으로도 보고 있다.

이처럼 미의 상(狀)은 과거부터 근대까지 시대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현대에서도 오랜 시간 강요된 아름다움인 것처럼 근대의 비너스들이 미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현대에 오면서 미의 변화의 폭은 유행처럼 더 짧아져가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중매체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닌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배우들을 미의 기준인 시대의 비너스라 여겼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에서 부러질 듯 가녀린 허리를 가진 비비안 리와 영화 ‘7년 만의 외출’(1955)에서 지하철 바람에 퍼진 치맛자락을 붙잡고 미소를 짓던 마릴린 먼로, ‘로미오와 줄리엣’(1996)에서 청순한 이미지에 글래머스한 몸매와 오뎅한 콧날의 올리비아 핫세, 이 모두는 시대가 제시한 보편적 미의 기준들이며 그녀들은 아름다움의 비너스처럼 전 세계 여인들이 닮고 싶은 미의 전형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나 배우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마치 같은 얼굴의 여럿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환영을 보는 것처럼 개성적인 얼굴을 가진 미인을 찾는 일이 이제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은 여러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속되고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자 스스로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 머릿속과 눈에 먼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획일화된 하나의 이미지에 나를 맞추어가려는 사회적 성향이 짙어져 결국 몰개성화 사회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시대를 대변해주

는 작품이 앤디워홀의 ‘마릴린 먼로’[도판6]이다. 앤디워홀은 시각주의 예술의 선구자로 그의 작품세계의 대부분은 미국의 물질문화와 극도로 상업문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량 생산화 되어가는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매체를 통해 동일하고 기계적이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먼로의 이미지와 기사들은 상업 제품처럼 개인의 개성과 미의 가치가 한 사회 안에서 상품이자 동시에 인기 있는 하나의 소비품이 되어버리고 획일화 되어가는 현시대를 말해준다.

본 논문은 이런 현시대의 획일화 되어가는 미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여 그 본질을 다루고자 함을 포함하고 있다.

## 2) 인체 표현의 동기 및 의미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나 그 외에 주술적인 용도와는 다른 의미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실존을 형상화하려는 수단으로써 조각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발견된다. ...대리석으로 소녀상을 조각한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작품에 연정을 느끼고 소녀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것을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간청한다. 요청이 허락되어 피그말리온은 이 아름다운 피조물과 결혼한다. 이 전설이 지금까지도 인간 상상력의 정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전설은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물질적인 도상(圖像, icon)에 투사하려는 뿌리 깊은 갈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류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미지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의식의 일부로서 보아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형상(image)을 마음속에 그려 보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한 심상(心像, idea)을 외부세계에 표출해 보는 것이다.<sup>3)</sup>

---

3) 허버트 리드,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옮김, 열화당, 2001, p.61

이와 같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인체는 예술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며, 미술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표현대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예술에 표현된 인체는 외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사실적 표현과 형태의 변형뿐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까지도 표현하게 되었다.»<sup>4)</sup>

본인의 작업 또한 인체조형작업이 주가 되고 인체를 작업의 주 소재로 선택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기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도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인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표현되어 왔지만 미술사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인체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서양 미술사에서 신체(인체)를 미적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역사적 기록은 기원전 8세기 경 그리스 시대 아르카익(Archaic)시기부터 신체를 모든 비례의 이상형으로 삼았고 신체의 비례는 미의 척도가 되었다.<sup>5)</sup>

인체미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시대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가 이상적인 신체의 구현을 위해 당시 의사나 과학자 보다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연구했다.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신체비례'(Vitruvian Man)(1485~1490) [도판 7]가 있다. 원과 사각형의 과학적인 틀 안에서 인간의 신체는 비례의 완벽함이라는 서양미술이 인간의 신체를 보는 관점을 말해준다. 몸에 대한 예술적인 관심은 몸이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나아가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1940년대 이후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에서

---

4) 미술연구회, <미학>, 서울 : 문명사, 1979, p.256

5) 수잔 우드포드, <그리스 로마미술>, 김창규 옮김, 예경, 1991, p.5

부터 신체행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1960년대 액션리즘(Actionism)과 플럭서스(Fluxus)의 빈번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 신체는 표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브 클랭(Yves Kline)의 신체와 그 흔적에 의한 개념적 작업에서 시작되어, 영적 체험의 일환으로 자신의 몸을 공중에 띄우려고 시도하거나 근동의 고대 여신상 같은 자세의 자기 모습을 흙으로 재현하는 등 신체적 행위를 통해 정신적 구도에 이르려는 작업들을 행하기도 한다.

신체미술은 1970년대 본격화된 바디아트(Body Art)에서 신체는 보다 확고한 예술의 매체로 부각된다. 이후 1980년대 만개한 페미니즘과 1990년대 파편화되고 해체된 신체미술의 경향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신체는 지시적 의미의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세계상을 페미니즘으로 함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단서로 간주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 경향의 키키 스미스는 신체의 확장되는 의미를 제시해주는 대표적 작가이다.

전반적인 문화 현상중의 하나로서 ‘몸’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술에서도 ‘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물론 신체에 대한 미술계의 관심은 과거 선사시대미술부터 그리스 로마시대미술, 르네상스 미술에 걸쳐 다루어졌었다. 1990년대 이후 현대미술에 있어서 신체가 갖는 의미는 과거 아름답게 재현되어야 할 대상이자 개념미술의 도구로서의 신체가 아닌 새로운 양상을 띄고 있다. 과거의 이상적인 인물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단축법, 명암법 등의 개발은 신체의 정확한 해부학적인 묘사를 통한 자연 모방론의 결과였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술이 자연의 모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체를 소재로 한 구상미술이 쇠퇴하면서 20세기 이후 시각적인 재현만을 중시하는 해부학적이고 이상적인 신체표현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작가들과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젊은 작가들에 의해 표현된 변형되고 왜곡되고 잔혹한 표현들은 보는 이에

게 충격을 준다.<sup>6)</sup>

과거 미술작품에서 신체표현은 재현의 틀에 의해 은폐되어 왔으며, 보기 역겨운 것이나 병적인 것은 재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게다가 미술가들이 본능적으로 흉하고 끔찍한 것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결국 신체는 불결한 것과는 상관없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표현되어졌다. 그러나 현대의 신체는 더 이상 우아하고 고상한 신체,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의 신체가 아니다. 그것은 성별을 구분하고 인종이나 계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sup>7)</sup>

이렇듯 고대에 인체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재현하는 하나의 대상이었지만 현대의 변형과 왜곡된 불완전한 인체는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의미 표출의 수단으로의 역할로도 그 영역이 넓어졌다. 과거의 인체가 인체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의 완전함과 이상향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불완전함에서도 또 다른 이상향과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본인도 인체를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표현들을 통하여 본인이 말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며 인체를 통해 간접적인 이상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신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구현해야 할 대상으로서, 관능적인 과시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공포, 불안, 도덕적 혼란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그 면모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역사에 등장해 왔다. 때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누드로 찬양되기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반드시 옷을 걸치거나 은폐해야 하는 수치의 대상으로 비취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게끔 해주는 표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신체라는 점

---

6) 최승은, <Kiki Smith의 작품 연구 : 페미니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p.18

7) 위와 동일, p.23

이다. 이미지와 의미에 있어서 이런 다의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 신체가 변용과 적응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대가 변할 때마다 신체에 대한 관념 또한 그것을 재현해 온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sup>8)</sup>

본인 또한 인체의 조형적 형태 변화의 시도와 본인이 처해있는 사회적 현실 상황 속에서 표현된 작품을 조형화하는 과정에서의 방법과 의미를 전개해 보았다.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 풍선 같이 부풀려진 인체

본인의 작품들은 모두 비대한 인체상이다. 인체 전체가 비대하게 팽창되어진 형태는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 거대하고 부담스러운 형상이다.

고대에는 풍만한 인체가 부와 풍요로운 삶을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하였지만 현대의 수많은 마스크를 통해 늘씬한 미녀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눈에 비대한 인체는 낯설뿐더러 아름답다고 느끼는 인체와는 거리가 먼 형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비대하게 부풀어 있는 충만하고 풍부한 형태가 아름답다고 느껴질 뿐이다. 이런 시각으로 본 형태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기형화시키며 과장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며 볼륨감 넘치는 살은 다정하게 느껴지고 풍부하게 팽창된 형태에서는 생명력까지 느껴진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몸이 비대하게 부풀어 오른 형태는 아름다움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다양한

---

8) 톰 폴린, <조각에 나타난 몸>, 김애현 옮김, 예경, 2000, p.177

형태의 시작이며 미적 조형성이 풍부하여 본인의 작품의 팽창된 몸과 미(美) 사이에는 변증법이 존재한다.

비대한 형태를 선택한 이유는 절대적 양감을 가진 인체상은 본인의 시각에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도, 자신에게 게으른 사람도 아닌 고대 인류의 태초에 생명력 넘치던 최초의 아름다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현사회의 획일화된 미의식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기도 하며 정형화되고 고정화된 미의식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인의 바람을 나타낸 표현이기도 하다.

작품의 형태는 풍선에서 영감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영감이란 것이 예술적인 형태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sup>9)</sup>

풍선의 특징은 부피가 크게 팽창되어있지만 그 안은 텅 비어있다. 이는 곧 좁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점차 꺾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가고 있는 현대의 미의식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으며 스스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한 가지 기준만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본인의 시각에는 길을 잃고 하늘에서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풍선의 모습과 같아 보였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덧없는 허망한 꺾데기의 모습(보여 지는 외모)을 위해 수많은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들의 안을 딱딱 채워가지만 실상 그 안의 모습은 텅 비어 있으며 금방이라도 터질듯하게 팽창되어 있고 불안하다.

본인의 작품은 이런 풍선의 모습과 반이상적인 비대한 여성 인체를 작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조합하고 재해석하는 동시에 작가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의 표출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대한 몸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지만 본인 작품 안에서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로운 이상향을 향해 언제든 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형태이다.

---

9) 마조리엘리오프베블린, <디자인의 발견>, 정경원 옮김, 디자인하우스, 2001, p.25

형태를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체 작품들의 대부분 해부학적 부분들은 생략되어 지고 인체를 과장, 팽창시키면서 단순화하였다. 이는 인체 표현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인체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이상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한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단순화되고 과장되어진 인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간결함과 이미지의 극대화로 다가오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또한 이렇게 표현된 비대한 인체는 살이 쩍 쳐져서 무겁고 중력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아닌 티질듯하게 부풀어져있는 풍선 같아 긴장감마저 갖게 한다. 이 긴장감은 본인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항상 느끼는 미의식에 대한 팽팽한 감정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렇듯 본인은 비대한 여성의 신체를 하찮게 보는 사회 문화적인 구조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가고만 하는 자의식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의식의 비판적 시각에서 현대 시대가 원하는 미의 기준인 날씬한 여성에 맞서는 비대한 인체를 선택한 것이다. 비대한 인체를 통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틀에 억압된 내면의 폭발과 억눌려있는 욕망에서의 해방과 탈출을 꿈꾸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 2) 꽃과 색의 상징

꽃은 예로부터 인간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美)의 상징이 되어왔으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전해져 오고 있다.<sup>10)</sup> 또한 꽃의 상징은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그로부터 많은 의미가 유추되고 확산되었다.<sup>11)</sup>

사람들은 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늘 곁에 두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

10)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 넥서스, 1998, p.29

11) 박용숙, <韓國美術의 起源>, 예경, 1990, p.47

장식 요소이자 삶의 활력소로 활용되어 왔으며 「꽃의 아름다운 생물학적 특성은 예술의 소재로서, 또 인간 감정표출의 상징으로서 그림, 조각, 시 등에 사용됨으로써 또 다른 상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꽃은 아름답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고, 창조된 예술작품의 궁극적 가치내용이 곧 ‘미(美)’라 할 때, 인간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진 또 하나의 미를 창조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로부터 꽃을 미적 표현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왔고 현재까지도 노력한다고 하겠다.»<sup>12)</sup>

현대미술에서도 꽃은 작가들의 내적 심상을 표현하기 위한 매력적인 소재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20세기의 주요한 화가들은 꽃을 그들의 주제로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지의 해체, 형태의 변형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작품으로 표출하였다.<sup>13)</sup>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꽃의 의미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그 아름다움은 현대사회가 정해놓은 미의식이기도 하다. [작품-1]의 꽃과 줄기가 비대한 인체를 친친 감아 움아매고 있는 모습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미의식에 사로잡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또한 [작품-2]에서는 꽃과 줄기가 여성 생리혈로 표현된다. 이는 미의식으로 상징된 꽃이 배설물로 표현되면서 현시대의 미의식을 반증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인은 꽃의 표현방법에 있어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사실대로 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을 구성하고 있는 꽃잎과 꽃 수술, 줄기를 단순화하고 본인이 의도한 느낌에 맞는 주관적인 표현을 위해 재료를 선택하여 작업하였다. 「예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목적 없이 복사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어 목적을 가진

---

1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 넥서스, 1998, p.29

13) 김희연, <꽃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적 표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디자인학과, 2010.2, p.9

표현으로 재창조 되는 행위이다. 모든 창조과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개개인의 독특한 직관, 지각 혹은 정서의 상태, 감각을 통한 표현이다.」<sup>14)</sup> 본인 작품에서 꽃은 아름다움과 미의식의 상징이며 꽃이 가진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표현하여 본인의 내면을 통해 꽃을 반증적으로 활용하여 비대한 인체상의 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형태면에서 현실적으로 무겁고, 거대해 보이는 인체의 거대함과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작품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밝은 파스텔 톤으로 선택하여 작업하였다. 색을 보고 무엇을 연상하는가는 경험에 따라 개인차가 크지만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연상은 비교적 개인차가 적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본인 작품 또한 색 자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그 색을 접할 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다. 주로 본인 작품들에 사용된 색채는 흰색, 분홍색, 빨간색이다. 흰색은 밝은 이미지로 깨끗하고 순결을 상징한다. 회화에서 배경색으로 많이 쓰이며 어떤 색과의 배색도 소화하는 조화로운 색이기도하다. 본인 작품에 사용된 흰색은 다른 상징성은 없다. [작품-1]에서는 꽃과 줄기의 흰색 표현은 분홍색의 인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 외 작품들에서는 인체형상의 팽창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분홍색은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색이다. 여성성을 상징하며 이는 곧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작품-1]의 비대한 인체 형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싶은 본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분홍색을 사용하였고,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피를 상징하며 [작품-2]의 꽃이 빨간 이유는 생리혈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을 사용하였다.

---

14) 허버트 리드,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 옮김, 열화당, 1981, p.31

15) 박연서,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p.93

### 3. 작품분석

본 연구에 등장하는 작업은 ‘비대한 꿈’이라는 제목과 본인의 시각에서 본 현시대의 획일화된 미에 대한 재해석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인전에서 발표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작업은 비대한 여성인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아름다운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인체형상작업을 통해 고정화된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에 부합되는 아름다움을 강요받고, 스스로를 억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여 그런 사회적 관념에서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자아를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바는 우리 생각들을 규정짓는 사회적 틀을 인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개개인의 올바른 미의식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작품-1] 비대한 꿈

[작품-1] 비대한 꿈

재료 : FRP, 아연철사, 레진

크기 : 130×150×270cm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구상 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sup>16)</sup>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 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맞힌 형상물에 우레탄 도색을 한다.
6. 완성된 작품에 만들어 놓은 식물줄기와 꽃 모형을 조합한다.

현실적으로 비대하고, 거대해 보이는 이 작품은 형태상으로 답답하고 중량감 있게 다가온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미의 기준에는 동떨어진 형태이지만 반증적인 표현으로 미의식에 대한 재해석을 의도하기 위해 이러한 비대한 인체 상을 만들었다. 비대한 크기에서 오는 거부감과 낯설음은 나 자신이 느끼는 현실에서의 미의식을 대변해 주고, 기괴할 만큼 커다란 형태는 나의 심정을 더 극대화시켜준다.

밝은 색상을 선택한 것은 소외되고 터부시되는 비대한 여성의 인체 형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욕망의 분출로의 통쾌함과 심적인 경쾌함으로 다가갈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

16) 사출(寫出) ; 글씨나 그림 따위를 그대로 베끼어 냄

또한 의미론적으로 사회적 기준, 틀에서의 해방으로 나만의 이상향을 꿈꾸는 욕망과 기존의 고정화된 미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기 위해 날아가는 포즈를 선택한다. 작품을 속박하고 압박하듯 감싸고 있는 줄기는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현실적 관념들을 의미하고, 줄기에서 피어난 꽃은 그 사회적인 관념들에 의해 파생된 미의식을 상징한다.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현실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너무 쉽고 많이 접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덕에 아름다움은 신성시되고 존엄스럽기 보다는 흔하고 진부함으로 느껴져 지루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 이 속에 어찌면 과장되고 왜곡되어진 형상이 더 신선하고 진귀하게 느껴져 통념적인 아름다움 못지않다는 것으로 느껴지길 기대해 본다.

설치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비대한 인체상이 형태적인 면에서 공간을 억누르기 보다는 줄기와 함께 연출되므로 파스텔 톤 색과 조합되어 공간 전체를 몽환적 상황으로 이끈다. 다소 무겁고 암울한 본인의 의도상황을 반증하듯 밝고 경쾌함으로 공간 전체를 연출해나간다.



[작품-2] in bloom

[작품-2] in bloom

재료 : FRP, 아연철사, 레진

크기 : 80×150×100cm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구상 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 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맞힌 형상물에 우레탄 도색을 한다.
6. 완성된 작품에 만들어 놓은 식물줄기와 꽃 모형을 조합한다.

몸을 구부정하게 숙여 힘을 주는 듯한 배설하는 형태이다.

사고하는 머리의 부재는 의식이 없음과 사회와의 단절, 더 나아가는 초월을 의미한다. 배설행위를 하는 비대한 여성 인체 상에 빨간 꽃과 줄기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

빨간 꽃과 줄기는 생리 혈과 배설물을 의미한다. 생리 혈과 배설물은 여러 문화에서 금기시되고 꺼려하며 숨기려는 주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미의식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느끼며 반(反)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미의 상징인 꽃을 배설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곧 기존의 미의식을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배설은 몸 안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의 표출이다. 나 스스로는 고정화된 사회적 규제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역설적 의미이지만 아직 줄기가 몸과 연결되어 남아 있다는 것은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는 사회와 개인의 숙명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형태적인 면에서 육중한 인체상의 자태는 강인함마저 느껴지고 이는 싸움터를 장악하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수와도 같다. 다른 의미로 현실 세계를 싸움터로 여기며 그 안에서 사회적인 규제에 맞서 싸우며 외부의 어떤 타협도 허락함 없이 자의식의 꽃을 피우는 모습이다.



[작품-3] forbidden

[작품-3] forbidden

재료 : FRP, 레진

크기 : 50×30×50cm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구상 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 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맞힌 형상물에 우레탄 도색을 한다.

밀봉된 풍선모양의 인체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 단절시키고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몸 안에 담아 둔다. 자유를 갈망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했지만, 본인은 본인 이야기로 또 다른 세상에 갇히게 된다.

두 인체의 머리 부분이 서로 묶여있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도 다른 이와 의 교감을 원하고 시도해보지만, 밀봉되어진 서로에게 안으로의 소통이 없이 겉으로만 묶여있는 모습은 교감이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세상과 단절된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자의에 의해 자신을 가둔 것인지 주변 간섭에 의해 갇혀진 것인지 생각해본다. 개개인(개체)의 속박은 집단의 속박을 자아내고, 속박된 상황에선 상통할 수 없음을 안다. 하지만 작품전체의 피상적 구도는 상통을 넘어선 본적 공감을 자아낸다.



[작품-4] pride

[작품-4] pride

재료 : FRP

크기 : 80×40×100cm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구상 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 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맞힌 형상물에 우레탄 도색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많은 매스미디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틈엔가 몰개성화<sup>17)</sup> 되어가고 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나만의 색깔을 무시한 채, 남들의 빛깔만을 부러워하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몰개성(沒個性)을 지향하는 전체적 사회는 회색빛 이미지이다.

여기 pride작품의 세 명의 여성은 비대하게 뚱뚱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포즈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신감 있고, 유쾌한 표정을 한 세 명의

---

17) 몰개성화 : 몰개성화(deindividuation)란 말 그대로 모두의 개성이 하나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자의 개성이 각각이 아니라 그 개성들이 하나로 합쳐져 버린다는 뜻이다. 사회학자 LeBon(1896)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흔히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본능들을 자유롭게 충족시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Zimbardo(1969)는 이를 ‘몰개성화’라고 기술하였고 이것이 비자제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몰개성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익명성, 책임감의 분산, 군중의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비대한 여성 인체 작품은 16세기 화가 라파엘로의 작품 삼미신을 연상시킨다.

라파엘로의 삼미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소재이며, 세 여신의 부드러운 인체의 곡선과 탄력 있는 육체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 당시의 비너스와 함께 미의 상징 이었다. 현대판 비너스는 고대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졌으며, 나의 작품의 세 비대한 여성은 현대사회에서는 비록 소외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충만한 볼륨감과 형태감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미적 조형성의 원천이다. pride작품의 세 명의 여성이 사회적인 틀과 기준을 무시한 자신만의 매력과 빛깔로 사회에 당당히 맞서는 현대사회의 미의 상징이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있다.

수많은 정보들로 고정화된 관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사고를 통제하고 형태적인 기준마저 제한시키는 사회에 억눌려 왔던 본인의 본능을 세 명의 비대한 여성의 당당한 포즈와 표정 표현으로 표출하였다.

비대한 몸에 대한 거부감을 미화(완충)시키기 위해 밝고 경쾌한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분홍색감으로 마감하였다.

이 세상에 자신 혼자만 있다면 가치 기준이 될 존재가 하나뿐이기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가치 기준이 있다는 이 사회 속에서 그 가치 기준은 하나로 정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되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이 세 여성에게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 명이 함께이기에 당당할 수 있다.

서로 상대방의 살을 살짝 꼬집는 모습은 서로에게 있어 각자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현대 미의식에 당당히 맞서는듯하지만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각자 참된 자아를 찾아가길 기대해 본다.



[작품-5] 과욕

[작품-5] 과육

재료 : FRP, 철

크기 : 30×50×50cm

제작년도 : 2010년

제작방법 :

1. 구상 된 형태를 점토로 제작한다.
2. 완성된 점토 형상을 석고 틀 작업한다.
3. 석고 틀을 탈영과 FRP 사출 작업을 한다.
4. FRP 성형 작업을 한다.
5. 성형을 맞힌 형상물에 만들어 놓은 철 의자를 결합시킨다.
6. 우레탄 도색을 한다.

요즘 얼짱, 몸짱 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듯이 외모가 가지는 중요성과 관심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들 또한 많아지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추세이다.

얼짱, 몸짱 이란 말에 ‘짱’은 일종의 계층구조를 말한다. 즉 이것자체가 개개인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얼짱이라는 획일화된 이미지에 나를 맞추어가려는 사회적 성향이 짙다. 이는 많은 매스미디어와 언론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틀이 사람들을 몰개성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추세, 흐름이 내겐 하나의 권위적인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런 심정을 비대한 몸이 의자를 짓누르는 형태로 표현했으며 이는 곧 사회적 권위를 짓눌러 무시해 버리는 의미이다.

오랫동안 인류와 같이해온 의자는 그 어떤 기구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본질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니다. 「권위를 상징화 시키는 표현수단이며 도구로 의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부에 대한 힘의 과시 욕구는 역사 이전인 작은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의자를 통해 실제로 형상화되었다.»<sup>18)</sup>

작품 과욕에서는 풍선같이 팽창된 비대한 인체상이 비교적 작은 의자에 의지해 불안히 앉아 있다.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태는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나의 입장, 심정을 대변해준다.

작은 변수에도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긴박하고 가변적인 위태로운 상태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편안해지고 싶은 욕망, 이상향을 만나고 싶은 욕망은 그자체가 현실세계에서는 욕심일 것이다.

---

18) 민찬홍, 윤영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관점에서의 본 의자의 상징성에 관한연구>, 학술논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8, p. 5

### Ⅲ. 결 론

대부분의 우리는 미인을 판단할 때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결정할 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적 도덕성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외적인 기준에 의한 현상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현실의 미의식을 지적하고 아름다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인식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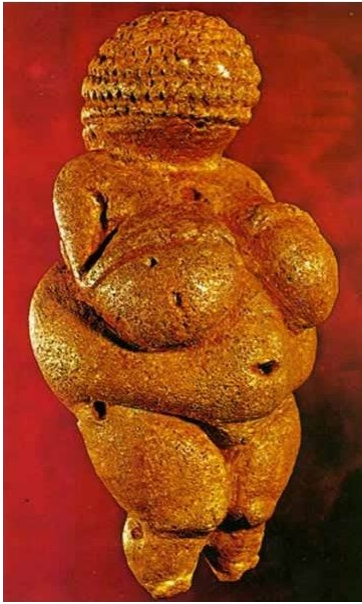
그 방법으로 본인의 작업은 비대한 여성인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존 미의 기준에 반(反)하는 인체의 형상을 경쾌하고 가볍고, 통쾌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할만큼 비대한 인체형상을 한 나의 작업들을 통해 기준에 여겨지던 인체 외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보고 재해석하자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작품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회의 고정화된 기준들과 틀에 의해 억압되어온 현대인들의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허망한 꿈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극히 제한되어있는 우리들의 사고에 전환점을 주는 대에 의미를 갖는다. 이 전환점으로 수많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의 우리들은 획일적으로 형성된 미의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미가 아닌 자신만의 매력을 키워나가고 외모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본인 작업의 주가 되어온 인체조형작업을 통하여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연구자의 작업과제를 생각해보고 미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며 고정화된 관념들을 재해석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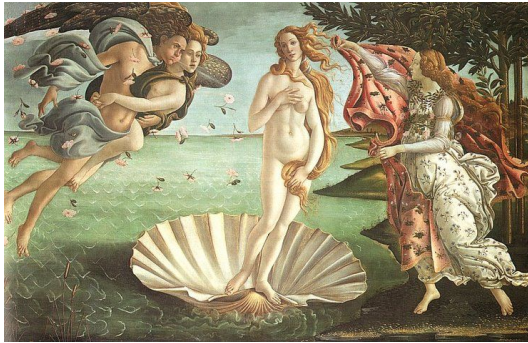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도판1] 빌렌도르프 비너스  
B.C 15000, p.3



[도판2] 밀로의 비너스 BC 2세기에서 BC 1세기 초, p.4



[도판3]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1485년경,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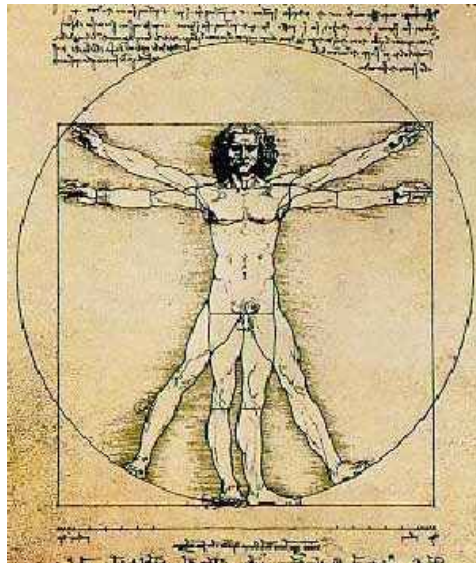
[도판4] 윌리엄 뷔게로의 '비너스의 탄생' 1879년, p.4



[도판5] 오귀스트 로댕의 '비너스의 몸치장' 19세기, p.4



[도판6] 앤디워홀의 '마릴린 먼로' 1962년, p.6



[도판7]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의 신체비례' 1485~1490년, p.7

## 참 고 문 헌

- 움베르토 에코, <미의 역사>, 이현경 옮김, 열린책들, 2005
- 미카엘 하우스켈러,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영경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4
- 허버트 리드,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옮김, 열화당, 2001
- 미술연구회, <미학>, 문명사, 1979
- 툼 플린, <조각에 나타난 몸>, 김애현 옮김, 예경, 2000
- 마조리엘리오프베블린, <디자인의 발견>, 정경원 옮김, 디자인하우스, 2001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 넥서스, 1998
- 박용숙, <韓國美術의 起源>, 예경, 1990
- 허버트 리드,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 옮김, 열화당, 1981
- 박연서, <색채용어사전>, 예림, 2007
- 수잔 우드포드, <그리스 로마미술>, 김창규 옮김, 예경, 1991
- 민찬홍, 윤영 <인간의 본질적 욕구의 관점에서의 본 의자의 상징성에 관한연구>, 학술논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998
- 김희연, <꽃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적 표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디자인학과, 2010.2
- 최승은, <Kiki Smith의 작품 연구 : 페미니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fat Body

- Centering around My Work -

Kang, Kyeong Mi  
Dept, of Sculpture  
The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It has been a human instinct to pursue beauty, and humans have tried to express such beauty in various manners. Among others, the beauty of the human body has been selected as a main motif of artistic activities ranging from the ancient times to date, and the criteria of beauty is also ceaselessly changing according to the aesthetic awareness of each era. The Beauty of the Old Stone Age was represented in Venus of Wilendorf, in which the gesture looked obese symbolizing childbirth and opulence, whereas Venus by Milo, which has voluptuous beauty and a graceful body shape matched the criteria of beauty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Then, how would Venus, which matches the current criteria of beauty, appear now?

Today's Venus can be easily encountered by anyone while walking down the middle of the street in Seoul or watching TV. However, we encounter people with very similar noses, similar foreheads and cheeks, similar eyes, and similar body shapes. While experiencing such a phenomenon, I came to think about what the true nature of beauty would be and what would be included the criteria of beauty, which have been typified; in addition, I expressed myself through works as a person who has thought seriously about what on earth beauty might be, and who has created such criteria.

I tried to pursue a new perception about a fixed aesthetic awareness with proposed works in this paper, and created works on the basis of an object, namely the obese female human body, which has been made taboo and neglected. I posed a question as to what the true value of intrinsic beauty would be as new formative objects that are interpreted from my perspective, and attempted to express a personal insight into the nature of beau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my works. Also, as I am a woman, this attempt stemmed from an awareness of being a woman and being sensitive to external beauty.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tents and forms of my works exhibited in 2010.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proposed the research purpose and research methods concerning my works.

The main body in Chapter 2 researched and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nd intention to create my works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job and the proceeding of the job.

The conclusion in Chapter 3 summarizes the meaning of the exhibition 'Obese Dream' through the summarization of the research of this paper, and proposes the forthcoming tasks of the researcher's work.